

목차

해외소식

- 04 **나마스떼, 등게스와리**
등게스와리의 뜨거운 5월 | 김혜원
- 08 **살라맛, 민다나오**
함께 할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 김태윤
- 11 **쭈리읍쑤어, 캄보디아**
라타나끼리의 비 오지 않는 6월 | 박주선

국내소식

- 14 **특집 어린이날 캠페인**
함께 나누는 기쁨, 좋았습니다 | 김민경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 편집부
- 20 **사람이 있는 풍경**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과 JTS가 함께한 행복나눔 바자회 | 이성희
- 22 **JTS가 만난 사람**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눈돌렸다는 점이 아름다워요 | 편집부

나눔회원소식

- 26 **새나눔회원 한마디**
오늘 첫 만남입니다 | JTS
- 27 **활동터 소식**
인도 · 국내
- 32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아침 7시, 일찍부터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학교에 가득하다. 50도를 육박하는 인도의 무더위 때문에 조기 수업에 들어간 것이다. 교실에 뻑뻑하게 앉은 아이들은 선풍기 바람 하나 없는 더위 속에서도 당연한 듯이 학교에 오고 공부를 한다. 책 읽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위 속에서도 낭랑히 울려 퍼진다.

16년 전까지 구걸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초등학교



등게스와리의 뜨거운 5월

햇살보다 더 뜨거운 것은 배우고 가르치는 아이들의 열정

아이들의 까만 피부는 더 까맣게 타오르고, 마른 체구가 더 말라간다.
한낮에 유치원에 도착한 아이들의 교복은 땀에 젖었고 얼굴은 햇빛에 익어 빨갳다.

선생님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인도의 혹서기인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학기 초에 교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만 해도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더위가 앞으로 다가오니 모든 일정을 다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상급생들은 아침밥도 먹지 못한 채 이른 시간에 학교에 나와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자전거를 타고 돌아온다. 아이들의 까만 피부는 더 까맣게 타오르고, 마른 체구가 더 말라간다. 한낮에 유치원에 도착한 아이들의 교복은 땀에 젖었고 얼굴은 햇빛에 익어 빨갳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교 아이를 아버지가 들쳐업고 오기도 했다. 온 몸에 열이 가득한 아이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쓰러졌다고 했다. 내내 토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 다행히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나아졌다. 더욱이 영양이 부족하고 허약한 아기들과 여학생들이 1주일에 몇 명씩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쓰럽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아이들을 잡겠다 싶

어서 여러 일정을 다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일들만 해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의 '부처님 오신 날' 일정에 맞추어 1주일 앞당겨서 행사를 계획하고, 11시 전에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쌀 모으기, 연극, 독거노인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주 동안 쌀 한 톨 모으기 프로그램을 하였다. 재작년에도 해 본 일이어서 그런지 교사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다. 쌀이 한 톨 한 톨 모아져서, 60kg이 되었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상까르라는 상급생은 다른 상급생들에 비해서 더 많은 쌀을 가져오고, 특히나 이번에는 아자드 비가 분교에서 5kg 가까운 많은 쌀이 모아졌다. 불가촉천민 마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에서 모아진 쌀을 받으면서 교사들과 함께 감격스러워했다.

이렇게 모아진 쌀은 15개 마을 독거노인들의 가정에 전달되었다. 집안 청소를 해드리고, 물을 길어 사용할 수 있도록 담아놓았고, 허물어진 담벼락을 정비해 주었고 긴 머리를 이발도 해드렸다고 돌아와서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다음에는 밀크라이스(유미죽)도 직접 만들어주고, 치료도 해드리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연극 연습이 진행되었
다. 점심 식사 후 휴식시



간을 이용하여 매일 연습을 하였다.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만들고, 역할을 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의견도 다양하고, 성향이 다르니 결정이 쉽지 않다. 교사들의 조율을 통해서 결정되고 나면 연습과 소품 준비는 생각보다 쉽게 진행된다. 올해는 앙굴리말라 연극이 1등을 차지하

집안 청소를 해드리고, 물을 길어 사용할 수 있도록 담아놓았고, 허물어진 담벼락을 정비해 주었고
긴 머리를 이발도 해드렸다고 돌아와서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였고 2등은 사문유관이 되었다. 연극 속에서 암전하기만 하던 아이는 자기의 끼를 살려서 역할을 해내고, 말도 잘 듣지 않고 말썽만 부리던 수닐이 의젓하게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학생이기만 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배,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

동계스와리의 뜨거운 5월을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과 교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급생들, 교사들은 더위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

글 김혜원 |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함께 할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JTS민다나오 학교지원사업 후보지역 답사보고

지난 6월 1~3일, 6월 8~9일 두 차례에 걸쳐 2010년 JTS민다나오 학교지원사업 후보지역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지역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왔던 키타오타오(Kitaotao)지역과 JTS민다나오의 공동대표인 트렐 교수님의 동료교수 중 한 분이 추천한 산페르난도(San Fernando)지역에 걸쳐있는 7개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다른 무니시팔(Municipal, 우리나라 군 단위에 해당)에 속한 마을들이지만, 하나의 큰 산악지역에 속하며, 모두 Matigsalug(마틱살루그)라고 하는 민다나오 원주민의 한 계통이 모여 사는 마을들입니다.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은 키타오타오와

산페르난도뿐 아니라 인접

한 다른 무니시팔인 퀘

손(Quezon)까지 포

합하여 3개 무니

시팔의 경계지역

이기도 하고, 부

키 드 논

(Bukidnon) 주

와 다바오 델

노르테(Davao

del norte) 주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기도 합니

다. 게다가 마을



이 지역은 조혼풍습에 따라 아랫마을에서 학교 다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편에게 시집가야했던 15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모두 산속에 자리잡고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어떤 지역정부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곳입니다.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서부터 산길을 따라 4.2km를 걸어가야 하는 키타오타오 지역의 나룰라산(Narulasan)의 촌장 페페(Pepe)는 JTS의 도움으로 마을에 학교가 지어지고 마을에서 떨어진 수원지로부터 물을 끌어와 마을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주민들이 더 이상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랫마을로 옮겨갈 필요도 없게 되고, 인근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살 수 있을 거라며 행복해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10km 이상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시타(Sita)는 마을이 생긴지 27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학교가 없어 마을주민 누구도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 해 JTS가 인근 마을을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JTS가 언젠가는 자신들의 마을도 반드시 방문할 것이라고 믿고 학교부지까지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곳에 학교가 지어진다면 시타뿐 아니라 인근 4개 마을의 100여 가구의 아이들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라며, 모두 기대에 찬 표정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주에 방문한 산페르난도 지역의 마을들은 키타오타오의 마을들에 비해 가는 길도 험하고, 그 길이 험한 만큼 사람들은 더욱 가난했습니다. 땀별을 막아줄 그늘 하나

없는 가파른 오르막을 한참 오르다가 깊은 숲의 진흙길을 엉금엉금 기다가 하기를 서너 시간씩 해서 겨우겨우 마을에 닿게 되는데, 가는 내내 농작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주민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마을도 갖추어진 수도시설이 없고, 마을 밖 한참 떨어진 작은 샘물에서 물을 떠다 나르는 것은 어디나 아이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서서 가지고 간 물통에 채울 물을 얻는 것조차 매번 미안했습니다. 집들은 나무 껍질을 이어서 벽을 하고 마른 풀로 지붕을 올린 것이 고작이어서, 가축들이 사는 외양간이라 해도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지역은 원주민의 오랜 풍속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조혼 풍습에 따라 일찍 결혼하여 자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린 소녀들도 있었고, 부모님들의 뜻에 따라 아랫마을에서 학교 다니다가 얼굴도 모르는 남편에게 시집가야 했던 15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원시적인 복수관념이 남아있어, 마을에 오르는 길에 자기의 부인을 납치해간 사람을 찾는다면 총을 들고 나선 부자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가난하고, 원시 문화가 잔존하긴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서, 마을에서 JTS의 학교지원 정책을 설명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관심있게 듣고, 질문하며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필리핀은 어디를 가나 아이들이 많습니다. 외



진 산골마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어서, 방문했던 어느 마을이나 아이들이 많습니다. 가난하여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문명과 떨어져 있어 교육받지 못하고 놀거리가 많이 없어도, 아이들은 이미 자기들 스스로 밝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던, 가난하기에 비참할 것이어서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함께 한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방문에 마을 현황을 파악한 것이

고작이고, 학교가 지어지려면 앞으로 한참 동안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벌써 마음으로는 마을마다 번듯한 학교가 지어지고, 아이들이 깨끗한 교복을 입고 즐겁게 수업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을에는 깨끗한 물이 나오는 수도시설이 마련되고 흩어져 살던 친척들과 이웃들이 학교주변으로 모여 마을의 일을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모습들도 그려봅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Salamat Kaayo! 🌸

글 김태윤 | 민다나오 JTS

라타나끼리의 비 오지 않는 6월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해하고 함께 가는 법을 배웁니다

라타나끼리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7월에서 8월까지의 한국의 장마처럼 종일 비가 내린다. 캄보디아의 우기는 하루 중 한 시간 정도만 집중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는 다른 아시아의 우기와는 다르다. 그런데 요즘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학교건축을 생각하면 비가 오지 않는 게 좋지만, 주민들이 우기철에 벼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생각하면 맑은 날이 걱정스럽다. 비가 오면 학교 건축이 걱정되고, 맑은 날에는 주민들 농사가 걱정되는 등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왜 우기에만 농사를 지을까? 물론 물 때문이다. 특히 라타나끼리는 산악지역이다 보니 산능선을 개간하여 벼를 심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비가 오면 벼를 심고 심어 놓은 벼는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알아서 자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기철 겨우 몇 개월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농사철에는 마을 주민 전부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농사일을 거들어서 함께 벼농사를 마치는 것이다. 쌀만 있으면 젓갈류나 소금에 절인 짠 음식 조금으로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에게 쌀은 매우 소중하다. 처음 학교건축을 하면서 준비회의를 마을별로 할 때 마을마다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점심식사용으로 쌀을 지원해주길 요청하였다. 지금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왜 그들이 쌀 지원을 요청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빨대를 꽂아마시는 술항아리



산등성 농지개간



벼농사 모습

처음 마을을 둘러볼 때 산 능선 군데군데에서 나무를 태워 터를 만들어 놓은 곳들이 눈에 띄었다. 그렇다고 타다만 나무들을 깨끗하게 치워서 땅을 개간한 것도 아니고, 뭔가 농사를 짓기 위한 땅 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건물을 짓기에도 너무 가파른 곳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그게 우기에 벼를 심기 위해 땅을 개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는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파내고 갈 장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나무를 태워서 아름답리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잔가지들은 주변으로 치우지만 무거운 통나무들은 그냥 그 자리에 둔 채 빈 땅에 벼를 심는 것이다. '장비가 있어서 이들의 땅을 말끔히 개간해서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는 공사 준비를 위해 자재업자와 함께 마을로 가는 길에 마을 초입에 이상한 게 세워져 있고 입구가 막혀있는 것을 보았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갑자기 차를 멈추라고 하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갑자기 긴장감이 돌고 차안의 사람들이 웅성웅성 불안해하는 게 심상치 않아서 운전하는 분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되돌아가자고 했다. 그리고 마을이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에 방문하겠다고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전화를 하니 이미 의식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였다. 마을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얼마 전에 일주일 동안 마을 입구를 막고 아픈 사람의 치료를 위한 의식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는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지키고 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외부의 출입을 차단하고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닭과 돼지를 잡아서 음식을 마련하고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면서 의식을 한다고 한다. 5월에 콜레라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마을에서 의식을 한 것이다.

소수민족의 전통 주술의식은 매년 행해진다. 주술의식을 통해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한다. 이들은 신이 자신들에게 화가 나면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

라타나끼리는 산악지역이다보니 산능선을 개간하여
벼를 심기 때문에 비 올 때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신에게 바치는 예물



의식을 위한 마을입구 예물 설치

기 때문에 매년 의식을 하는 것이다. 이때는 오직 마을사람들만이 참석할 수 있다. 외부인은 참석할 수도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다.

또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 것이기 때문에 슬픈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장례식을 잔치처럼 치른다고 한다.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축하파티를 며칠 내내 하는 것이다.

이들이 마시는 술은 전통주인데 여러가지 곡식을 넣어서 발효시킨 술에 물을 타서 빨대로 빨아 마신다. 아주 큰 항아리에 빨대 하나를 꽂아 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며칠 동안 종일 쉬지 않고 술을 마시는 것이다.

처음 이곳에 와서 대부분의 캄보디아사람들은 소수민족을 게으르고 항상 취해 있고, 함께 일하는 게 힘들다고 표현했다. 그렇다. 어쩌면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세월을 산속에서 한 마을을 세상의 전부로 알고 자연에 맞춰서 살아온 것이다. 그들이 자연이 주는 만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만큼만 얻고 그 외는 신의 뜻에 맡기며 신을 믿고 살아왔다. 그러다 어느 날 산속으로 길이 생기고 외부에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처럼 살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들을 '게으르다, 문제가 많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소수민족의 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지으면서 아이들을 위해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면서 이곳에 그들과 함께 내 삶을 또 다른 방식에 맞춰가는 방법과 기다리는 법을 배우가고 있다. ✨

글 박주선 | 캄보디아 JTS

함께 나누는 기쁨, 좋았습니다

모금 캠페인에 참가한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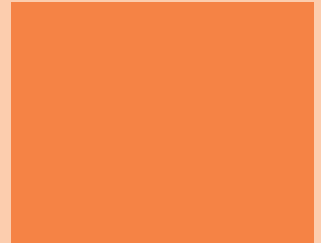
글 김민경 | JTS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JTS는 아시아 어린이 빈곤퇴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전국 118곳에서 1867명 참가하여 48,279,787원이 모금되었는데, 이번 캠페인의 특징은 어린이날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인지 가족단위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아래로는 제주도에서, 상주, 김천, 거제, 함안, 통영, 공주, 정읍 등 소도시, 그리고 대도시까지 전개된 이 캠페인은 명실상부한 전국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어린이 빈곤 퇴치를 위해 JTS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날이라고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넉넉한 용돈과 먹거리 그리고 백화점 행사에 가서 연필을 타온 기억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어린이날은 놀이동산에서 부모님과 손을 잡고 풍선을 들고 놀이기구를 타고 빼어로가 있고 퍼레이드가 있는 뭐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 조카들도 이제 겨우 태어났거나 말을 배우는 녀석들이라 제겐 어린이 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상주 JTS에서 어린이날 JTS거리모금에 참여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내



가 모금함을 들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모금에 대한 어두운 기억이 있었고 그때 사람들의 냉담함이 나를 무척 작게 만들었습니다. 구걸하는 마음? 날 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만나 하는 원망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상주시내에서 JTS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을 때 웃는 봉사자들과 낯선 학생들을 보며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함께라면... 모두 다 같이라면... 이 어른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봉사자들과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제가 이럴 때 안도하는 걸 보면 어른께 기대는 마음이 아직 성인이 되었지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봉사자들과도 인사를 나눕니다. 장금옥님. 그 유명한 분이 어린이날 행사에서 뵈게 되었습니다.(^^) 상주에서 하는 첫 행사에 지원나오신 장금옥님은 밝은 얼굴로 우스개 소리 섞어가며 저희에게 캠페인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노하우 전수와 함께...

캠페인 장소인 경천대 도착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부터 했습니다. 상주에서 봉사하시는 박정순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셔서 저희들은 더 풍성한 인원으로 모금을 진행할 수 있었고, 학생과 어른이 짝을 맺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굶는 아이를 돕습니다. 천원이면 7명의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 길지도 않고 어려운 말도 아닌 이 말이 입으로 나오기가 왜 그리 힘든지... 결혼하신 봉사자들은 한참을 연습하시고 역시 아줌마 특성으로다 성큼성큼...

모두들 각자 돛자리 펴고 식사하는 가족에게로, 경천대 오신 많은 분들을 향해 전진 앞으로.... 나를 비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나들이 나온 가족이 적었습니다. 그에 비해 모금하는 우리





가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루종일 모금함 들고 다닐 걱정을 했던 제 우려와는 달리 모금은 한시간 가량하고 저희도 놀러 나온 가족들처럼 돛자리 펴고 싸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상주 봉사자들 13명, 포항에서 오신 손윤희님 따님 포함 학생 7명, 포항에서 오신 장금옥님과 손윤희님 이렇게 22명이 함께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늘 두번, 세번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정토를 만나 불대에 입학하고 첫 거리모금. 그 처음이 이렇게 어색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이들에게 분별심을 냈다는 분도 있었고, 어린이의 작은 손에서 나온 동전에 감동받았다는 분도 있었고, 주기는 쉬운데 받기는 어려운 걸 알아 앞으로 모금을 하시는 분께는 꼭 동참하겠다는 분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 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선생님 쫓아 이런 봉사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막상 해보니 뿌듯하고 쭉뚝거리던 자신이 좀 부끄럽지만 보람되었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시작 때 사진 한 장 찍고 그 다음은 모금하느라 기록할 생각도 못했던 우리들의

서툰 모습이 그래도 소중한합니다. 이 한 것보다 우리에게겐 더 많은 추억과 많은 것을 알려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안 소식인데 경북에서 상주가 모금액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모금액이 제일 많아 기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나눌 수 있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

아직 제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굶주린 아이를 도와서가 아니라 제가 또 다른 한발짝을 뚝 수 있어서 2010년 어린이날 행사는 어른이 된 제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상주 첫 모금을 함께 하시기 위해 먼 길 달려오신 장금옥님과 저희 상주불대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신 구미에 사시다 이사하신 손윤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마음내 와준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대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저희 이동한다고 버스도 불러주시고 뭐든 아쉬울 때 다 이루어주시는 김경숙님과 상주불대를 위해 온갖 신경 다 쓰시고 새벽부터 도시락 싸시고 늘 고생하시는 김철한님 부부. 한분 한분 호명할 수 없으나 함께하신 상주불대 도반님들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소중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



끓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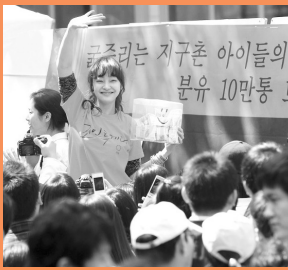
서울 명동에서 길벗의 어린이구호 캠페인

편집부



사단법인 한국JTS와 방송, 영화, 문화예술인 모임 '길벗'은 5월 2일, 서울 명동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한 거리모금 캠페인 <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를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지민, 최다니엘, 김여진, 윤소이, 서효림, 민효린, 작가 노희경, 영화감독 한지승, PD 성준기 등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여해 직접 모금함을 들고 명동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람들과 만났다.

명동 우리은행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나눔과 사랑을 호소하는 시낭송회 등이 펼쳐졌고 참여연예인들이 직접 캠페인 티셔츠를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되었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하는 방송, 영화, 문화예술인의 모임 '길벗'은 매년 두 차례씩, 3년 째 거리모금을 이어오고 있다. 배우 배종옥씨는 지속적인 무대진행을 해왔으며, 배우 김여진씨는 이번에 '모금행사 책임자'를 자처했다. 특히 JTS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지민씨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모금함을 들고 모금하는 모습은 연예인이 단순 마케팅 수준에서 머무르는 여느 행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얼마 전 출판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저자인 노희경 작가는 인세 전액을 기부했다.



이번 행사의 책임자인 배우 김여진씨는 "UN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약 2억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은 작은 질병으로 쉽게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는다"며 "이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매년 뜻을 모으고 있으니 시민들도 즐겁게 참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로부터 모인 금액 500여만원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분유와 의약품 지원에 전액 기부되었다. ✿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과 JTS가 함께한 행복나눔 바자회

글 이성희 | JTS



2010년 6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4시. 서울 장충동 (주)디자인하우스 본사1층에서 “굶주리는 인도 동게스와리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세요”를 모토로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과 JTS(조인투게더)가 손을 잡고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 5월호에 노희경 작가님의 ‘지금 나누지 않는 자, 유죄’라는 인터뷰를 필두로, 이 월간지는 매월 JTS(조인투게더)에 대한 기사를 실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매월 잡지에 기사와 JTS 후원카드를 첨부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뭔가 큰일 한번 내보자! 라는 <행복이 가득한 집> 기자들의 적극적인 열의와 성원에 힘입어 ‘바자회’라는 행사를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모두 바자회는 처음이라 시행착오는 많았지만 기자님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다음 호 기사마저 제쳐두시고 바쁘게 뛰어주신 결과, 적지 않은 규모의 바자회를 오픈하게 되었다.

바자회 물품은 리빙, 인테리어, 뷰티물품, 패션소품, 주방용품, 책, 음식명인의 식품 등 유명브랜드 제품 또는 기자와 스타일리스트의 애장품, 손맛 손맛이 느껴지는 제품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2시에는 김미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행복 나눔 경매'가 진행되었다. 김병중, 하상림, 김중식 작가의 판화 1점씩, 김호연, 오관진 작가의 회화 1점씩, 엄미금 작가의 민화 1점, 이종능 작가의 달항아리, 이은범 작가의 무유면 친항아리, 그리고 모벨랩의 사이드 보드, 인엔의 의자, 도데카의 테이블, 담연의 이불, 불가리의 가방이 기증물품으로 경매 쇼를 빛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경매 수익금만 무려 1490만원이 되었다.

오전 11시에 오픈하여 오후 4시까지 진행된 행복나눔 바자회엔 300여명의 <행복> 독자들이 함께 해주셨다.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임해주신 JTS자원봉사자들과 행복 기자님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당일 바자회 판매 수익금과 바자회 입장료 (1만원) 전액은 JTS(조인투게더)에 전달되었고 인도 동케스와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눈돌렸다는 점이 아름다워요

인터뷰 삼육식품 박신국 사장

정리 편집부

JTS는 4월 6일 인천항에서 대북지원물품 선적식 행사를 가졌다. 밀가루, 두유, 분유 등 식량 및 생필품, 교육자재가 북한에 지원되었다. 북한의 고아원 어린이에게 보내는 물품 중 두유 36만개(1ℓ)는 12,000명의 어린이가 매일 3개월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 한다. 급박한 일정 때문에 많은 양을 주문해서 무사히 북한으로 보낼 수 있기까지는 삼육식품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JTS는 말한다. 이에 편집부는 삼육식품 박신국 사장을 만나서 JTS와 함께 북한의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두유를 지원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들어보았다.



삼육식품은 두유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삼육식품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써, 1985년 순식물성 단백질 식품사업과 두유사업을 시작으로 오직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만을 생산해 왔으며,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모태로 안전하며 품질 좋은 제품만을 생산하는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정직한 기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육식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미래의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영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온누리에 건강을 지켜줌으로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한 재료를 사용하여, 정직한 맛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의지가 삼육식품이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유로 JTS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시 도움을 주셨는데, 어떤 계기로 일하게 되었는지요?

과거에도 북한 동포를 위한 대북지원 사업을 전개한 적이 있어요. 국가조달청을 통한 지원과 삼육재단 내 구호단체인 아드라를 통한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JTS와의 인연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에 주저없이 공개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회사 특관 영업부서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회사의 이익보다도 우선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북한에 보낸 두유제품을 만드는 데도 어떤 원칙이 있었나요?

어려운 북한 어린이를 삼육식품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삼육식품의 “온누리에 건강을”이란 인간존중의 설립목적에 일치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번에 JTS를 통해 북한지역에 납품되는 제품에는 그 의미가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입찰단계로부터 생산 포장,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임직원이 제품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을 담은 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수많은 두유회사와 제품들이 많지만 JTS가 저희 삼육식품을 선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결례가 되는 질문인데요. 이번 두유제품은 저렴하게 입찰되었고,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로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들었는데 북한에 보내는 제품의 질은 국내산과 별차별없는 건가요?

오히려 국내에서 생산될 신제품을 보냈어요. 최고의 안전과 우수한 품



JTS를 통해 북한지역에 납품되는 제품에는 그 의미가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입찰단계로부터 생산 포장,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임직원이 제품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을 담았습니다.



JTS가 북한에 지원한 두유는 북한의 9개 시·도 53개 고아원에 잘 분배되었습니다.

질의 영양있는 음료로 준비 생산하여 가족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었어요.

만들기 전에 시험테스트도 했어요. 이번에 들어간 아기두유 2단계는 8월 이후 출시할 새 제품인데, 만약 기존 두유제품을 썼다면 저희도 생산이 훨씬 쉬웠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아기두유 신제품을 임상실험했는데 아기들의 80%가 성장발육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이 제품을 보내야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의견이 모아졌어요.

또한 불량이나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생산이사, 생산부장, 생산과장이 직접 생산라인에 내려가서 함께 제품을 생산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제품의 불만이 있으면 즉시 처리되지만 북한으로 가면 제품에 불만이 있어도 저희에게 전달되길란 어렵잖아요?

만약 10년 후에 저희 회사 두유를 먹었다는 어린이를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불량이었거나 맛이 이상하였다고 하면 그때 어찌겠어요? 저희는 삼육의 이름을 지킵니다.

북한에 보내는 두유제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생산 기계를 24시간을 돌리고 많은 분들의 노고와 정성으로 제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두유제품을 생산하기까지의 진행과정을 말씀해주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보면 팩 키지의 디자인 문제와 팩 인쇄 후 배송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JTS 납품 용기는 SIG Combibloc이라는 스위스회사가 독일공장에서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신제품이 출시되는 단계를 보면 최단기간이라도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번 제품은 1개월만에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실무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현지에서 빠르게 운송하기 위해 항공으로 운송함으로 5배에 해당하는 운송비 지급이 있었지요.

기존 생산계획에 추가하여 많은 생산을 하게됨으로써 저희 생산부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매일 3교대 생산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손 내밀어서 같이 하자고 해야 맞는데

“삼육식품은 학교법인으로 본래부터 교육사업에 기여와 사회봉사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삼육식품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JTS가 먼저 하자고 해서 미안해요.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을 가졌다는 것, 서로가 서로간의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렸다는 것은 한 사상을 뛰어넘어섰다는 것이예요.

‘우리’라는 선을 그어놓으면 끝난 것인데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100% 기부가 아닌 것이라서 뿌듯함이 없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 일은 우리가 조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이드에서 돕는 일도 의미있다고 봐야죠.

두유제품을 공급가의 절반도 안 되게 납품하셨는데, 그건 JTS에 기부하는 의미로 후원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에 기업의 사회환원과 기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서 말했듯이 삼육식품은 학교법인으로 본래부터 교육사업에 기여와 사회봉사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삼육식품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기업의 사회 환원과 공헌은 저희 회사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가져야할 정신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실행해야할 기업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진행하고 있거나 이후 진행 예정인 사회환원에 대한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현재에도 국제구호봉사 단체인 ‘아드라’를 통해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회사가 위치한 지역장학지원사업, 경로잔치 행사, 기타 재해복구지원 등 국민적 구호활동

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JTS와 같은 구호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사회 봉사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JTS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번 업무진행을 보면서 JTS의 모든 구성원이 진정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JTS의 정신을 보고 세상이 무척 아름다워보였습니다.

선적식 행사에 갔을 때도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순수해보였어요. 물품을 공급하는 다른 업체인 밀가루회사 사장님과 인사를 나눴는데 뭔가 본인이 기여했다는 자긍심이 보이더군요. 참 좋았어요. 저희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했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 회사와 같은 정신을 가진 동반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향후에도 이웃사랑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후에도 JTS가 같이 하자고 손 내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도와야죠, 한번 인연이 됐으면 가는 거죠. 뜻이 같으니까 같이 해야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다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라며 선뜻 유쾌하게 대답해 주셨다. 100% 기부가 아닌 것에 인터뷰 내내 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시대의 이상적인 기업가상을 보는 듯했다. 일완지식(一碗之食)에 함천지인(含天地人)이라, 곧 ‘밥 한그릇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JTS가 북한에 보낸 두유 한 방울에도 많은 이의 노고와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큰 깨달음을 주신 삼육식품 박 신국사장님과 신총희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첫 만남입니다

정리 JTS 회원팀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서 후원신청을 하면서 JTS에 바라는 점을 기록한 후원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잘 담아 활동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수시 노인복지회관에서 10년 넘게 식당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 저는 한지민님의 팬입니다.
밝게 웃을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

김관우(4/14-정기)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은숙(5/11-정기)

받는 자보다 베푸는 자가 감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계속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하창렬(5/26-정기)

부족하고 작지만 소중한 그 무엇이 되어 저도 자라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길..

서은호(5/17-정기)

더 열심히 살아 더 많이 도울게요..
지금은 꾸준히 하는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꾸벅 ^^

우경애(5/19-정기)

인도소식

① 우물 6개와 핸드펌프 3개 신설

식수 사정이 좋지 않은 동게스와리에 우물 6개와 핸드펌프 3개가 신설되었다. 지금까지는 갈수기에는 마을의 우물과 핸드펌프의 물이 말라서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했는데, 이번 우물과 핸드펌프의 신설로 6개 마을의 주민들이 갈수기에도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우물 15개 및 핸드펌프 43개를 수리해서 갈수기에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이동진료와 구충제 투약**

지난 4월부터 지바카 병원에서는 병원에 오기 힘든 먼 마을을 대상으로 5번의 이동진료가 매주 열렸다. 앰블런스에 간단한 드레싱 물품과 약을 싣고 인도인 스텝 4명과 함께 마을로 직접 찾아가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더운 여름에 마을에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다. 지바카 병원에서 널리 사용하는 동종요법에 대한 교육을 같이 진행하여 병원과 동종요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다. 앞으로도 매주 1회씩 진행할 예정이며, 4월부터 지금까지 약 190여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6월 말에는 동게스와리 14개 마을 대상으로 약 8900여명에게 구충제 투약이 3일 동안 이루어졌다.

**③ 쌀 한 톨 모으기 프로그램 진행**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2주 동안 전교생이 '쌀 한 톨 모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매일 모아진 쌀은 총 60kg이 되었으며 15개 마을 극빈자에게 각각 쌀 4kg, 달 1kg이 제공되었다. 5월 15일 상급생 아이들이 직접 극빈자 가구에 찾아가서 독거노인들의 집안청소, 물나르기, 담벽쌓기, 이발을 해드리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④ 수자타아카데미와 유치원 여름방학 시작**

인도의 휴서기로 인해 5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수자타 아카데미와 유치원은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국내소식



① 서울대 생활과학관에서 JTS 인도구호사업 발표

5월 28일(금) 서울대학교 생활과학관에서 '국제 영양·구호사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2010년 (사)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춘계심포지움을 가졌다.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원조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최초 국가가 되었다. 이 심포지움에서 김애경 JTS 사무국장은 1993년부터 시작된 인도구호사업을 통한 인도 어린이 영양 지원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동계스와리의 빈곤 정도, JTS 영양지원 원칙을 비롯하여 동계스와리 16개 마을의 유치원영양지원과 수자타아카데미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의 영양지원 및 동계스와리 저체중아 영양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참가자에게 공유한 자리였다.



② 삼성 사랑의달리기 행사, JTS 부스 참여

5월 6일 삼성전자(주) 반도체사업부 기흥/화성 사회봉사단에서 주최하는 '제23회 Nano City 사랑의 달리기' 행사에 JTS가 참여하였다. 노희경 작가와 흥보대사 김여진씨는 축하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1만 여명의 삼성 직원들에게 JTS를 알리고 돌아왔다. 매년 5월, 12월 두 차례 기흥산업장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처음 참여하는 JTS는 부스 하나를 할당 받아 도네이션북(노희경 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한지민 저 '우리 벌써 친구가 됐어요')과 조인투게더(JTS) 티셔츠 판매에 나섰다. 달리기라는 행사 특성상 (달리기할 때는 지갑을 갖고 뛸 수는 없으니까) 삼성측에서 마련해 준 IC카드 리더기는, 의외로 '빛'을 발했다. IC 카드는 직원들이 갖고있는 것인데 참여자들이 한 번씩 찍을 때마다 만원씩 기부로 적립되는 시스템이다. 저토록 가벼운 마음으로 기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영겁걸에 찍고, 궁금해서 찍고, 덩달아 찍고, 좋은 일이라며 찍고, 그리하여 책 1075권과 티셔츠 1000장 완판의 성과를 이루었다. 책과 티셔츠를 판매한 수익 전액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분유 10만통 보내기>에 쓰여진다.



③ 연극열전과 JTS가 함께한 기부공연 행사

작가 노희경의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제작, 공연 중인 연극열전과 JTS가 함께 기부공연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20일 8시 공연의 전 수익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홍보대사 김여진씨의 사회로 3년간 수익의 1%를 JTS에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식도 함께 가졌다. 노희경 작가와 홍보대사 김여진, 한지민씨가 참여한 이번 기부공연에는 200여명의 관객이 공연과 협약식을 함께해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감동적인 공연과 가슴 따뜻한 기부의 기회를 동시에 갖게 된 관객들은 자신들이 갖고 돌아가는 뿌듯한 마음만큼이나 기아로 고통 받는 지구촌 아이들의 마음 역시 여유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표정이었다. 공연의 수익금과 더불어 공연 당일 판매된 도네이션 북(노희경 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판매금, 공연 내내 비치되어있는 모금함의 기부금 역시 JTS측에 전달된다.



④ 제니하우스헤어샵, JTS에 500만원 기부

제니하우스헤어샵 청담점(본점)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함과 아울러 제이스타일 매거진 2호를 기념하여 오프닝 파티와 자선바자회를 5월12일 개최하였다. 바자회물품은 연예인, 제니하우스관계자들의 소장품을 비롯하여 각종업체에서 협찬하여 주신 물품이었고, JTS홍보대사 한지민씨도 참석하여 행사를 빛냈다. 이날 거의 모든 물품은 판매되었고, 바자회 물품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을 나누어 평소 후원하는 보육원과 JTS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제니하우스 원장님은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⑤ 삼성 사랑의달리기 행사때 기부금으로 모인 20,280,000원 전달식 가져

지난 5월 6일 삼성 사랑의 달리기 행사에서, JTS(조인투게더) 기부금으로 모인 20,280,000 원의 전달식을 가졌다. 6월 16일 JTS 사회공헌팀 사무실로 삼성전자의 차성길 부장님, 정세현 차장님, 엄호성 대리님이 직접 오셔서 전달해주셨다. 노희경 작가가 친필로 감사의 편지를 전했고, JTS 홍보대사 김여진씨가 함께 참석하였다. 행사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삼성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내소식



⑥ 월계초등학교생들의 사랑의 동전모이기

한국JTS 울산지부는 6월 11일 (금) 오전10시 울산 남구 무거동 월계초등학교(교장 황덕주)교장실에서 JTS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을 가졌다. JTS 사랑의 저금통은 열사람이 밥을 한술씩만 보탠다면 한사람 밥은 된다는 우리의 고유한 심시일반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월계초등학교는 지난 5월 굶주리는 제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사랑의 동전모으기를 해왔다. 행사에는 월계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장선생님, 지도교사, JTS울산지부 김용주대표, JTS 자원활동가들이 참가했다.



⑦ 국제로타리 3720지구 울산서부로타리클럽 인도 및 제3세계어린이 돕기 2,000,000만원 성금후원

한국 JTS 울산지부는 6월 15일 (화) 오후1시30분 울산 울주군 언양읍 울산서부로타리클럽(회장 김용주)사무소에서 인도 및 제3세계 어린이돕기 성금 (2,000,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2009~10회장이신 김용주회장님의 취임식에서 축하화환 대신으로 받으신 성금을 굶주리는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성금으로 기탁해 주셨다. 국내에 어두운 곳을 밝히는 봉사를 활발히 하시는 울산서부로타리클럽회원들이 지구 저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한는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에는 울산서부로타리클럽회장(회장 김용주), 서부로타리클럽회원들, JTS 자원활동가들이 참가했다.



⑧ 방기초등학교생들의 사랑의 동전모이기

한국 JTS 울산지부는 6월 16일(수) 오전10시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방기초등학교(교장 최연기)교장실에서 JTS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 (모금액 526,460원)을 가졌다. 방기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50명 정도되는 작은 학교이다. 전교학생들은 지난 5월부터 굶주리는 제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해왔다. 행사에는 방기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장선생님, 지도교사, JTS울산지부 김용주대표, JTS 자원활동가들이 참가했

다. 지난 5월 동안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 저편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동전을 모아 후원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9 중산중학교, '아시아 어린이들의 엄마가 되주세요' 젓병 저금통 전달

고양시 중산중학교는 지난 5월 굶주리는 아시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JTS '아시아 어린이의 엄마가 되주세요' 젓병 저금통을 중산중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학생들은 한달여 동안 아시아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동전을 모았고 수거 및 계수까지 직접하는 열성을 보여주었고, 모금한 돈 4,640,900원을 JTS에 기부하였다. 중산중 학생들의 굶주리는 아시아 어린이를 위해 보여준 열성과 따뜻한은 JTS를 통해 인도 동계스와리 및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학생들의 급식과 학용품 구입비로 쓰여진다. 중산중 학생들과 교장선생님(배임용) 및 저금통 분야에 힘을 보태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 대구 학남중학교, JTS 대구지부에 저금통 전달

대구 학남중 학생들은 지난 3월 빈그릇 강의를 기점으로 잔반 줄이기 실천으로 환경살리기에 동참하고 있고 강의 후 전교생들에게 나눠준 돼지저금통에 용돈을 아껴 모으면서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지구 저편 친구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했다. 특히 학남중학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되어 통일도우미들을 모집하여 다양한 교육활동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 모금활동이 북한을 비롯한 제 3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일이라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한다. 지난 5월 체육대회가 열린 날에도 통일도우미들이 통일 관련 행사로 북한의 모습을 바로 알고 돕자는 취지에서 슬러시를 팔았고 그 수익금을 이번에 함께 기부해주셨다. 그렇게 소중한 모여진 저금통들은 6월 21일 JTS로 전달되었다. 저금통 모금에 동참해 주신 학남중학교 학생 및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금통 총 모금액 2,189,610원은 인도 동계스와리, 필리핀 민다나오 어린이들에게 영양식과 급식으로 쓰일 예정이다.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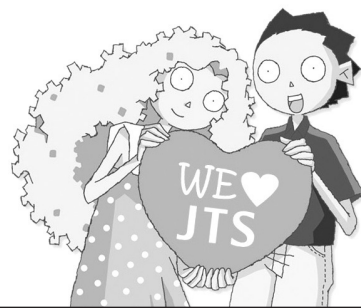
2010년 4월 1일 - 5월 31일

문의전화 02-587-8995

인도 및 제3세계

강경화	P0047073	김미혜	P0047785	남호진	P0046615
강개선	P0046503	김민정	P0047327	노윤정	P0047417
강문정	P0049011	김민지	P0029049	목탁소리	S0048736
강민진	P0046702	김민진	P0047164	문상벽	P0048567
강성재	P0046705	김병중	P0047024	문지순	P0045023
강영진	P0029587	김상희	P0039457	민병도	P0047145
강윤찬	P0047527	김소미	P0039155	박난숙	P0048335
강주식	P0048116	김소희	P0048257	박남희	P0046436
강창욱	P0047419	김수정	P0048569	박영선	P0047834
강희원	P0046518	김수환	P0046975	박민수	P0047274
고미선	P0048334	김수현	P0047530	박수경	P0047830
고유미	P0040650	김순아	P0047194	박순점	P0040772
고희경	P0046966	김아남	P0047271	박영	P0048258
고희연	P0048023	김왕미	P0047821	박용문	P0046981
공경호	P0047969	김연수	P0046437	박은미	P0045074
공민준	P0047668	김연희	P0048087	박은선	P0047325
곽문창	P0047433	김영률	P0047329	박익근	P0046519
곽원삼	P0013100	김용진	P0047351	박재석	P0047413
구민석	P0047541	김은희	P0047853	박정하	P0046523
권선혁	P0047270	김원섭	P0047259	박종서	P0039498
권이름	P0018361	김윤자	P0047805	박주홍	P0037950
권영순	P0047846	김윤재	P0047564	박지은	P0021414
권영화	P0046448	김윤정	P0043799	박지혜	P0047252
권외정	P0047526	김이경	P0027813	박태현	P0046614
권정애	P0047321	김재섭	P0046004	박현금	P0047813
김기연	P0047076	김재형	P0042103	박혜연	P0047575
김경기	P0047265	김정숙	P0048412	박효진	P0036569
김관우	P0047852	김정화	P0048355	배윤진	P0046599
김광원	P0048557	김종하	P0048817	백근선	P0047287
김금룡	P0047318	김중현	P0038593	백세종	P0047010
김기덕	P0045969	김주형	P0047536	백승환	P0041499
김기성	P0047437	김지선	P0046980	백연하	P0046852
김기숙	P0048568	김지연	P0047418	백은아	P0047217
김기완	P0048409	김지희	P0047018	복선	P0047153
김기환	P0030499	김진순	P0048785	서정현	P0023512
김기훈	P0047281	김진혁	P0048525	서형호	P0028168
김도영	P0049278	김태규	P0047096	성적스냅(이원필)	
김동희	P0016062	김태훈	P0047278	P 0 0 4 9 0 8 0	
김복희	P0029328	김혜경	P0002857	손영양	P0047243
김달숙	P0047064	김혜영	P0046968	손은하	P0047405
김영미	P0047290	김효숙	P0048352	송홍순	P0048656
김미경	P0032293	김화숙	P0046974	신명경	P0004246
김미나	P0048651	김화숙	P0047025	신세라	P0045090
김미성	P0046521	김희자	P0048667	신한카드	P0048089
김미숙	P0041340	나윤경	P0047469	심헌택	P0047780
		나윤숙	P0048175	안두해	P0047786

안성숙	P0043653	이수민	P0045229	장혜진	P0047818
양갈수	P0047105	이수선	P0047789	전보환	P0048735
양나래	P0046935	이수연	P0011808	전상희	P0047332
양복순	P0048177	이숙자	P0047832	전순영	P0023951
양지원	P0046603	이승남	P0046979	전윤희	P0047280
양진혁	P0047283	이양자	P0048336	전은경	P0048001
양화연	P0047854	이영경	P0047129	전창아	P0045642
여영주	P0048841	이영규	P0048252	전춘호	P0046846
오외식	P0048818	이영민	P0045613	전혜승	P0048778
오재부	P0046970	이영숙	P0046711	장다희	P0047241
용화선원문화센터		이영애	P0049092	장덕	P0047430
S 0 0 4 8 1 6 9		이유진	P0043363	장도연	P0049093
원승국	P0046602	이윤화	P0048284	장운모	P0047579
유대원	P0047669	이은수	P0047554	장직상	P0047456
유미정	P0047849	이은실	P0048991	장진희	P0049012
유선임	P0046089	이이환	P0046965	정현욱	P0046851
유승연	P0048783	이재연	P0035447	정혜진	P0046847
유종숙	P0010206	이정민	P0028403	제천간디학교	
유지연	P0045252	이주영	P0047604	P 0 0 4 8 0 7 1	
윤시우	P0047258	이지훈	P0048146	조민경	P0046850
윤신혜	P0047244	이진석	P0047470	조민지	P0047585
윤옥근	P0048327	이진숙	P0047075	조병철	P0046985
윤옥천	P0047414	이진우	P0047809	조병훈	P0046984
윤우진	P0046188	이진욱	P0020755	조영수	P0046815
윤윤균	P0047246	이찬우	P0047807	조윤수	P0042105
윤주인	P0047997	이춘엽	P0047313	조재은	P0045299
윤지원	P0047254	이태욱	P0046297	조정선	P0031188
윤창만	P0045340	이하나	P0047277	조정원	P0046534
윤철상	P0047999	이혁재	P0043575	조주연	P0045668
이기영	P0046613	이현석	P0024415	조혜영	P0048353
이경애	P0048461	임미혜	P0038899	주글로리아진스코리아	
이경화	P0048179	임승현	P0047245	S 0 0 4 8 0 0 2	
이귀선	P0048659	임진강	P0048061	주제너하우스	
이근순	P0042556	임창숙	P0049277	P 0 0 4 8 7 1 7	
이명설	P0048347	임형준	P0046509	지성혜	P0005526
이명순	P0046552	장미애	P0019515	진금연	P0048100
이명화	P0048653	장서라	P0039667	진행배	P0047184
이명희	P0047547	장영민	P0046685	진현중	P0046978
이명희	P0047987	장원지	P0046211	채선욱	P0047071
이미경	P0010776	장재학	P0013008	채순황	P0047285
이미선	P0047319	장정환	P0045789	최경선	P0044746
이미숙	P0046634	장정호	P0048540	최경희	P0047408
이미자	P0048460	장주성	P0048547	최명욱	P0048406
이민영	P0049213	장해경	P0046900	최민정	P0047788
이민주	P0048163	장혜리	P0048156	최성욱	P0048418
이소진	P0039788	장혜원	P0046814	최연	P0046853



※ 정기후원명단은 지면할애상 제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최우영	P0046596	권영숙	P0047440	김수현	P0047162
최윤경	P0028960	권영순	P0047846	김수현	P0047530
최정원	P0047276	권영화	P0046448	김승현	P0046989
태옥려	P0047528	권오웅	P0003707	김영미	P0047821
하은정	P0047787	권용근	P0047020	김연수	P0046437
한갑섭	P0048414	권용주	P0025835	김영숙	P0025990
한승희	P0041018	권유진	P0046522	김예림	P0046507
한옥향	P0046435	권현숙	P0008046	김용규	P0047284
한의규	P0046676	기라성	P0048571	김용래	P0048168
한지민	P0025395	김기연	P0047076	김원석	P0047403
한혜리	P0044855	김경미	P0046812	김유경	P0047234
한희숙	P0047309	김경수	P0002251	김유나	P0047826
해들누리어린이집		김경철	P0025985	김윤재	P0047564
S O O 4 7 0 5 4		김관우	P0047852	김윤정	P0043799
허승아	P0047262	김교석	P0045820	김은경	P0046983
허옥분	P0047397	김규영	P0044508	김인원	P0048509
허준석	P0047261	김금홍	P0047318	김정남	P0046605
허지호	P0046021	김금순	P0046915	김정현	P0044595
현승완	P0047053	김기덕	P0045969	김정화	P0048355
홍승희	P0047775	김기성	P0047437	김조현	P0047263
홍정숙	P0047404	김기숙	P0048568	김종현	P0038593
홍화정	P0031573	김기완	P0048409	김주형	P0047536
황경아	P0037014	김기정	P0046401	김지은	P0047666
황송동	P0036361	김기훈	P0047281	김지혜	P0047131
황원주	P0038925	김동희	P0016062	김진혁	P0048525
황은아	P0047237	김복희	P0029328	김창근	P0048996
		김명숙	P0047824	김태호	P0048410
		김명의	P0047290	김태훈	P0047278
강경화	P0047073	김명종	P0027235	김하은	P0047027
강계선	P0046503	김무영	P0046579	김한솔	P0046432
강동균	P0046600	김미노	P0046585	김혜영	P0048994
강민재	P0046988	김미라	P0048332	김해정	P0043009
강민진	P0046702	김미숙	P0048138	김현경	P0037060
강병창	P0046598	김민정	P0047327	김혜영	P0046968
강상영	P0047833	김민진	P0047164	김해진	P0048004
강정완	P0047257	김변호	P0047436	김홍임	P0029440
강희원	P0046518	김병규	P0047792	김희숙	P0046974
고유미	P0040650	김병종	P0047024	남창우	P0047533
고희경	P0046966	김상로	P0047840	남춘식	P0007126
고희연	P0048023	김상형	P0012437	노윤정	P0047417
공경호	P0047969	김상희	P0039457	노혜숙	P0005363
공민준	P0047668	김선영	P0046770	류성희	P0014985
공윤경	P0042058	김성수	P0047160	마미주	P0048781
곽문창	P0047433	김소미	P0039155	마수연	P0048998
구민석	P0047541	김소희	P0048257	명신영	P0032339
권연영	P0046811	김수진	P0048657	목탁소리	S0048736

북한어린이돕기

문상벽	P0048567	서희정	P0047465	이난희	P0019214
문선희	P0047402	설기환	P0012462	이남숙	P0048271
문소현	P0033733	설종환	P0047522	이덕희	P0038890
문정숙	P0047256	소재섭	P0010963	이명순	P0046552
문지숙	P0046668	손병호	P0046964	이명희	P0047987
문지순	P0045023	손영양	P0047243	이미경	P0010776
민경덕	P0047822	손은하	P0047405	이미숙	P0046634
민주원	P0048537	손정향	P0047320	이병주	P0047432
민호진	P0047163	송일철	P0046963	이부연	P0018325
박남희	P0046436	송재중	P0049270	이상교	P0030022
박동남	P0047038	신세라	P0045090	이상근	P0048941
박동일	P0010399	신수희	P0015220	이상복	P0048000
박미희	P0047116	신영희	P0048270	이상필	P0046272
박민수	P0047274	신태민	P0046344	이성숙	P0048510
박순진	P0047028	안미루	P0046616	이성재	P0011361
박연숙	P0047268	안청자	P0046591	이송희	P0046434
박영	P0048258	양갈수	P0047105	이수빈	P0045229
박용문	P0046981	양복순	P0048177	이수연	P0011808
박용자	P0011103	양소보	P0047784	이수현	P0049091
박은미	P0045074	양지원	P0046603	이숙현	P0048564
박을원	P0048779	양진혁	P0047283	이숙희	P0002347
박재미	P0038883	양창욱	P0047958	이순남	P0047441
박정미	P0047488	염승훈	P0048997	이순자	P0047330
박정자	P0047275	오미숙	P0046577	이순희	P0048108
박정하	P0046523	오미옥	P0039536	이승열	P0046592
박주광	P0047331	오병석	P0046636	이승형	P0028837
박주영	P0047546	오재부	P0046970	이원동	P0047030
박주홍	P0037950	오정호	P0040720	이유진	P0043363
박준하	P0048776	유선미	P0046089	이윤화	P0048284
박지은	P0021414	유성희	P0005033	이은영	P0046930
박태욱	P0039749	유은경	P0043651	이은지	P0046530
박혜연	P0047575	유재한	P0012599	이민선	P0047323
박화숙	P0014069	유지연	P0045252	이재연	P0035447
배영선	P0048774	윤경순	P0048648	이정교	P0046617
배종말	P0047823	윤수현	P0047109	이정림	P0046849
백금선	P0047287	윤시우	P0047258	이정옥	P0048842
백연하	P0046852	윤옥천	P0047414	이정임	P0049044
백은아	P0047217	윤은옥	P0004595	이정호	P0046937
백일종	P0038409	윤주인	P0047997	이정희	P0048088
백혜영	P0013825	윤지원	P0047254	이주영	P0047604
삼성비버스쿨어린이집		윤철상	P0047999	이지수	P0023680
P 0 0 4 7 0 6 3		이경애	P0048461	이지윤	P0045905
세마음의원P0028318		이경화	P0048179	이진솔	P0016561
서경숙	P0046608	이귀선	P0048659	이진숙	P0047075
서은호	P0048751	이근순	P0042556	이진자	P0045612
서혜영	P0047529	이기수	P0048665	이종렬	P0047543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2010년 4월 1일 - 5월 31일

문의전화 02-587-8995

이태희	P0049035	조미숙	P0047495	황은서	P0046710
이하나	P0047277	조영수	P0046815	황지영	P0048995
이현정	P0048165	조용석	P0047535		
일불스님	P0048328	조윤수	P0042105	북한건설	
임수현	P0018244	조은정	P0047545	김명화	P0048790
임승현	P0047245	조일숙	P0048164	김충동	P0036640
임재찬	P0047000	조혜영	P0048353	오병석	P0046636
임정자	P0038090	주인순	P0047317	이순정	P0039436
임종학	P0015441	차유선	P0022974	임순화	P0043282
장순자	P0048269	차정희	P0038607		
장옥에	P0048312	채선욱	P0047071	결핵퇴치	
장우진	P0034995	최경선	P0044746	강경화	P0047073
장원지	P0046211	최명옥	P0048268	강기범	P0029411
장재혁	P0047825	최명옥	P0048406	고희경	P0046966
장해경	P0046900	최미대자	P0010841	구민석	P0047541
장해원	P0046814	최미희	P0041064	권영화	P0046448
장해진	P0047818	최은경	P0028960	김기연	P0047076
전경숙	P0010131	최은희	P0047538	김관우	P0047852
전광력	P0046619	최은경	P0022234	김기덕	P0045969
전미연	P0047112	최태범	P0048045	김명주	P0047409
전미자	P0047253	최태옥	P0017468	김민진	P0047164
전사회	P0047332	최행규(김숙경)		김범주	P0025185
전세화	P0048752	P 0 0 3 7 6 4 9		김상희	P0039457
전순영	P0023951	추유선	P0046464	김성수	P0040128
전윤희	P0047280	태옥려	P0047528	김소울	P0046594
전정숙	P0022117	팽영주	P0016686	김수현	P0047530
전정아	P0045642	허은정	P0047787	김영미	P0047821
전희정	P0046962	허은주	P0047471	김연수	P0046437
정대희	P0047238	한광수	P0045781	김영일	P0047349
정덕	P0047430	한기형	P0047389	김윤정	P0043799
정명숙	P0047065	한대국	P0046961	김종현	P0038593
정범기	P0047322	한문희	P0047328	김주형	P0047536
정수림	P0047831	한소희	P0047264	김태훈	P0047278
정송희	P0031205	한영조	P0048248	목탁소리	S0048736
정영숙	P0048046	한영진	P0048247	문정숙	P0047256
정윤모	P0047579	한옥향	P0046435	박용문	P0046981
정은정	P0047370	한재호	P0049047	박정미	P0047488
정지연	P0048016	한희숙	P0047309	박정하	P0046523
정직상	P0047456	허영숙	P0047851	박주홍	P0037950
정환욱	P0046851	허지호	P0046021	박지은	P0021414
정란홍	P0047133	홍성목	P0046722	송주예	P0048660
정해진	P0045387	홍숙이	P0039624	신세라	P0045090
정현숙	P0041881	홍승희	P0047775	양지원	P0046603
정현욱	P0048351	홍예연	P0047072	윤종찬	P0047247
정혜선	P0046973	홍정숙	P0047404	윤주인	P0047997
조미란	P0022420	홍정표	P0047537	윤철상	P0047999

이대용	P0048792	김영숙	P0047843	이유진	P0043363
이명화	P0048653	김윤정	P0009822	이윤화	P0048284
이미경	P0010776	김윤정	P0043799	이정림	P0046849
이승용	P0047667	김정현	P0044595	이현경	P0046601
이영민	P0045613	김제환	P0018085	이형란	P0048160
이유진	P0043363	김종현	P0038593	임승현	P0047245
이윤화	P0048284	김주형	P0047536	임정자	P0038090
이종호	P0047783	김지연	P0047418	장미진	P0014719
임승현	P0047245	김태훈	P0047278	장성연	P0021881
장미진	P0014719	김혜림	P0048559	장원지	P0046211
장정환	P0045789	김희동	P0046755	장정현	P0045789
장한	P0048775	남호진	P0015003	장해경	P0046900
전찬성	P0049271	도윤과 나눔		전미연	P0047112
전화영	P0048329	S 0 0 4 8 0 4 4		정덕	P0047430
정덕	P0047430	목탁소리	S0048736	정직상	P0047456
정직상	P0047456	문철희	P0047402	정환욱	P0046851
정환욱	P0046851	문정숙	P0047256	조영수	P0046815
조영수	P0046815	박기두	P0048162	조윤수	P0042105
최명옥	P0048406	박길순	P0048662	조정옥	P0048047
최민정	P0047788	박남희	P0046436	조한석	P0038782
최윤경	P0028960	박남남	P0037185	조창구	P0007971
최윤영	P0027763	박순진	P0047028	주수영	P0032712
태옥려	P0047528	박연숙	P0047268	차선정	P0047410
허지호	P0046021	박용문	P0046981	최명옥	P0048406
현승완	P0047053	박주홍	P0037950	최은경	P0028960
황선랑	P0048993	박지은	P0021414	최윤영	P0027763
		변정원	P0015982	태옥려	P0047528
		서경숙	P0046608	표정원	P0048734
강경화	P0047073	서병욱	P0047515	한옥향	P0046435
강계선	P0046503	서윤석	P0048319	황경아	P0037014
고종열	P0047070	서혜영	P0047529	황성희	P0048086
고희경	P0046966	시지영	P0048170		
구민석	P0047541	신수희	P0015220		
권영화	P0046448	양지원	P0046603		
김기연	P0047076	유영숙	P0046606		
김경숙	P0044634	유은경	P0043651		
김관우	P0047852	유현주	P0047013		
김기덕	P0045969	윤종찬	P0047247		
김기성	P0047437	윤주인	P0047997		
김미나	P0048651	윤철상	P0047999		
김민진	P0047164	이두영	P0047544		
김상희	P0039457	이명화	P0048653		
김성식	P0046584	이미경	P0010776		
김성욱	P0047415	이선민	P0048073		
김수현	P0047530	이수빈	P0045229		
김연수	P0046437	이영민	P0045613		

특별후원금

2010년 4월 1일 - 5월 31일

인도 및 제3세계

오세욱	79,850원	제천간디학교	90,430원
강주식	50,000원	오외석	42,360원
강호성과부인결혼축하		옹화선원문화센터 697,110원	주)제니하우스 5,000,000원
	50,000원	우병근	200,000원
곽원섭	20,000원	유종숙	27,950원
구상은	90,000원	윤동현	70,000원
김미경	40,000원	윤선아	300,000원
김미옥	30,000원	윤옥근	50,000원
김미정	50,000원	은현	60,000원
김민지	50,000원	이경락	80,000원
김병구	100,000원	이경림	100,000원
김봉애	12,000원	이경애	10,000원
김순아	24,400원	이경훈	5,000,000원
김슬기	100,000원	이관희	100,000원
김영호	30,000원	이광성	100,000원
김원섭	200,000원	이영희	100,000원
김은숙	100,000원	이미자	60,000원
김이경	1,000,000원	이미화	2,500,000원
김재섭	100,000원	이민주	20,000원
김정란	100,000원	이봉식	119,300원
김정미	3,000,000원	이수연	10,000원
김정희	70,000원	이엘디알티센터(주)	
김종하	500,000원		2,600,000원
김진순	100,000원	이영경	50,000원
김태순	60,000원	이영준	50,000원
김현조	50,000원	이은실	30,000원
김희경	500,000원	이정남	30,000원
노영남	240,500원	이정숙	50,000원
마켓인사이트(주) 979,500원		이태욱	100,000원
박명선	33,710원	이향순	150,000원
박미영	1,000,000원	이혁재	15,000원
박수경	50,000원	이현목	100,000원
박정하	20,000원	임남환	1,200,000원
박민수,백은하 결혼축하		장미애	10,000원
	1,000,000원	장영민	10,000원
서성애	30,000원	장우상	50,000원
스승의날맞이(백영일)		장우진	50,000원
	50,000원	장정호	50,000원
신한카드	344,384원	전보환	1,000,000원
안상현	50,000원	전준호	100,000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전해송	50,000원
(주)	21,500원	정숙영	500,000원
오기숙	20,000원	정지상	200,000원

문의전화 02-587-8995

최순이	1,000,000원	문병두, 송정순영가 왕생극락원강대극, 김동영, 강재원	오인숙	100,000원	
		강주연	406,000원	유성희	150,000원
강상영	105,000원	문소현	100,000원	윤경순	30,000원
강연수, 오재인영가 극락왕		민경덕	45,200원	윤영욱	200,000원
생원	200,000원	박경미	200,000원	윤석만	40,000원
강명규	20,000원	박동일	100,000원	윤수현	30,000원
결혼기념일맞이	100,000원	박민수, 백은하 결혼축하		이경림	100,000원
			1,000,000원	이경애	200,000원
고재우	50,000원			이년희	100,000원
고정희	200,000원	박수민	30,000원	이다원	100,000원
규운회	90,000원	박영애	10,000원	이동훈	50,000원
권순자	40,000원	박용자	200,000원	이만영	162,000원
권오웅	100,000원	박을원	30,000원	이명숙	24,550원
권정화	100,000원	박재우	2,018,060원	이영희	100,000원
권현숙	50,000원	박태욱	50,000원	이부연	100,000원
김경수	100,000원	박해정	300,000원	이상근	25,250원
김경은	30,000원	박화숙	100,000원	이성숙	80,000원
김경철, 조부기일맞이		배명선	10,000원	이수연	30,000원
			200,000원	이수현	10,000원
김미라	1,518,190원	백화순	30,000원	이수재	700,000원
김병규	30,000원	변형석	50,000원	이영석	1,000,000원
김상형	50,000원	새마을의원	100,000원	이재훈	140,000원
김선미	30,000원	서창임	50,000원	이정숙	34,200원
김성남	300,000원	서희정	110,000원	이정임	100,000원
김성란	50,000원	석탄일맞이(소재성)		이준호	30,000원
김성애	1,000,000원		50,000원	이진솔	50,000원
김성환	500,000원	석탄일맞이(이인정)		이종희	20,000원
김세정	100,000원		100,000원	이태환	10,000,000원
김송자	100,000원	송재중	300,000원	이혁재	300,000원
김수길, 김성만영가 극락왕		스승의날맞이(박영애)		이현정	30,000원
생원	1,000,000원		50,000원	일봉스님	1,000,000원
김순호	2,000,000원	신경아	100,000원	임남환	250,000원
김예림	100,000원	신태민	150,000원	임보성	140,000원
김원섭	50,000원	신혜경	100,000원	임승화	40,000원
김은경	50,000원	실상사어린이	435,100원	임은숙	100,000원
김인복	400,000원	심호철	1,000,000원	임재찬	10,000원
김재훈	40,000원	아버님 김흥권 기일맞이		장선일	3,000,000원
김창균	300,000원		300,000원	장우진	250,000원
김혜영	1,000,000원	안건호	100,000원	전경숙	10,000원
김혜진	20,000원	안영석	50,000원	전병찬	65,430원
김홍임	107,000원	안영준	50,000원	정광자	200,000원
남준식	50,000원	양길수	1,000,000원	정수림	10,000원
노혜숙	50,000원	오남순	40,000원	정숙영	500,000원

특별후원금

정승용	300,000원	김영희	50,000원	박기두	100,000원
정승희	10,000원	김춘동	200,000원	이선민	50,000원
정정희	30,000원	김필숙	110,000원	이형란	100,000원
정직상	100,000원	노태곤	200,000원	임남찬	100,000원
정진순 81세 생신기념		문언정	100,000원	장성연	370,000원
	360,000원	문일곤	250,000원	정승희	20,000원
조명숙	100,000원	민지혜	100,000원	조한석	100,000원
조연정	30,000원	박민기생일	50,000원		
조은정	30,000원	박분남	50,000원		
조혜진	50,000원	박정순	200,000원	김성순	200,000원
차육진	100,000원	박정순	200,000원	김필숙	200,000원
차유신	50,000원	박현진	10,000원	이명순	20,000원
최건웅생일축하	50,000원	백경임	300,000원	이유신	28,000원
최문경	33,000원	서예경	500,000원	이정희	200,000원
최미대자	10,080원	서호성	511,950원	이지화	20,000원
최선호	30,000원	송성희	40,000원	정정해	30,000원
최윤석	100,000원	안광민	150,000원	최영순	200,000원
최은경	500,000원	이명순	100,000원		
최점순	1,000,000원	이명순	100,000원		
최정숙	30,000원	이순정	50,000원	4월 1일 - 5월 31일	
최정자	100,000원	이순필	50,000원	국내총성금	
최태욱	200,000원	이승화	30,000원		13,070,210원
최행규(김숙경)	300,000원	이승화	130,000원		
하은이	140,000원	이영자	30,000원		
한광수	110,000원	이위선	200,000원		
한보석	140,000원	이위선	220,000원		
한살림경남	46,230원	이혜진	50,000원		
한선화	20,000원	임춘옥	200,000원		
한승희	200,000원	주대호	500,000원		
한재호	50,000원	주선자	100,000원		
홍도연	30,000원	주승희	200,000원		
홍명희	30,000원	최낙용	50,000원		
홍성관	1,000,000원	최연희	50,000원		
홍숙이	150,000원	최영순	103,000원		
황지영	10,000원	한살림경남	9,140원		

지복희, 조영희 유로 \$600

결 핵 퇴 치

북 한 재 건

김상수	63,000원
-----	---------

(주)헤르메스 미디어

489,750원

인도모자보건

김명환	10,000원	김남숙	30,000원
김석용	100,000원	김성욱	1,000,000원
김성규	100,000원	김제환	206,890원

나눔저금통 현황

2010년 4월 1일 - 5월 31일

➔ **경주**

박서현 3,490 선정숙 43,540 이순희 20,000 황우재 5,200

➔ **광주**

계림동이진호 25,510 김동숙(부다가리) 16,070 동신여고2박혜인 26,920 봉산중김민호10,360 비아신협 35,410 비아중박종민 8,280 비아중이민하 4,490 빛고을시민생활매장29,840 성덕중김민규 1,480 월봉중김기범 2,460 월봉중이정민 3,890 임형근 19,690 전예린 12,050 정세림 22,350 정세희 24,170 진흥중유혜원 3,440 최병옥 30,000 한봉길 23,660 황경임 14,600

➔ **대구**

권보경 28,530 권현순 20,500 김가인 38,970 김경숙 75,000 김도영 33,050 김도훈 21,450 김동수 31,760 김동현 26,170 김미수 34,550 김영습 19,400 남경자 30,310 류경한 17,560 류종필 20,090 무명 32,600 무명 15,670 박길태 28,040 박미수 21,540 박정순2개 41,500 박주연 32,090 신연화 21,700 윤성원 106,620 윤여영 19,330 윤여영 7,390 유우준 14,640 이지환 38,170 이지환 38,320 장세호 17,990 장혜진 22,000 조윤희 12,620 조인호 16,470 최수영 21,730 추점자2개 18,600 칠곡군소망어린이집 20,840 **학남중학교 2,189,610**

➔ **대전**

김경화 12,130 김몽제 50,000 대전법당 20,000 무명 18,000 무명 28,200 무명 7,670 문석호 26,210 이민형 31,030 이지은 34,400 조문성 32,950 최은주 18,970

➔ **동래**

공정현 48,710 21세기헤어삼민덕 15,050 강찬근 33,760 강효정 19,530 구현우 19,370 김기태,임해남 12,220 김동원 15,720 김옥래 31,960 김운윤 18,720 김채원 5,410 김초은 18,260 김한서 20,440 노동건 7,310 동래삼계탕 30,370 류숙희 62,620 류혜원 12,420 무명 28,720 무명 31,120 박말자 17,350 배서원 4,960 범문주 93,750 북구만덕3동열린교회 157,100 손숙연 34,910 송임숙 38,750 오상현 27,320 오성훈 29,100 오익숙 27,430 윤옥희 27,100 이수남 30,470 이정애 36,100 이창호,진숙희 29,620 정다현 8,600 조협 12,170 천정숙 33,500 최해란 18,350 현영자,김혜례 20,960

➔ **마산**

강진석 28,350 강형구 9,720 김상선 35,590 김성주 14,820 김성주 13,070 **대합초등학교22개 116,470**(1학년 500 1학년박민찬 9,110 강정환 5,130 김민성 10,120 김신영 8,320 김현지 370 김희라 5,600 무명 2,170 서인석 1,570 서지현 3,500 성유진 6,700 유치원 3,050 윤예진 12,210 이수빈 1,940 이유정 3,060 전지현 2,850 전환정 8,100 정순호 1,990 정호 8,590 최윤경 5,960 하성호 5,580 하현정 10,050) 동읍하동연 19,470 무명 19,650 무명 6,320 문시윤 22,230 문주은 23,320 박소영2개 42,100 서동찬 32,440 안영실헤어뉴스 31,100 이석민2개 32,880 이은정(함안산인) 11,960 장준우 41,170 전찬웅 39,600 전찬웅 13,310 조

나눔저금통 현황

2010년 4월 1일 - 5월 31일

수빈(산인어린이집) 19,930 **중리원협8개 210,090** 구민회 6,330 권은주 8,070
 묘락행3개 60,590 종철 14,200 진명공업구내식당 1,950 케이스사관 97,020 피
 자빙고 6,710 호야 15,220 천영희 11,720 최경훈 30,980 코오롱사우나2개
 16,710 한살림김경구 26,580 허순영 26,480 홍수진 23,590

➔ 서울

강성윤 31,000 강재원, 강주원 39,710 공양행 15,790 권현정 5,940 금오중학교
 325,500 김가현, 김은표 16,000 김교영 32,000 김규진 4,670 김락신 24,300 김
 미경, 김정자 35,040 김진기 16,950 김민희 22,990 김승재 18,090 김신규
 16,000 김신규 24,330 김장훈 18,640 김향 24,830 띠띠요가 39,540 명연돼지
 14,320 무명 16,190 무명 24,510 무명 20,850 무명 16,890 무명 2,940 무명
 16,690 무명 5,360 무명 136,710 무명 35,240 무명 19,620 무명 31,900 무명
 18,570 무명 27,080 무명 24,210 문경 12,660 문경 52,700 문경 10,770 문경
 24,120 문영미 24,140 박경미 17,140 박철근 25,500 박태욱 25,960 배항기, 배정
 한 52,890 백남기 21,700 부흥중2-1 42,520 사랑의종소리운동 21,110 서울집
 31,190 서초1동우체국장 41,750 선주초등학교5-8 6,600 설정연 16,600 성현미
 17,000 송성희 33,930 송양자 28,600 송자영 23,010 **신도봉중학교 2,219,270**
 신무동 27,200 심유현 24,180 아름다운가게홍대점 140,120 안지은 38,240 양창
 옥 20,600 여러분이에게 21,840 오봉열 11,700 오봉열 2,190 윤주사 45,080 유
 용겸 10,960 유용희 25,420 윤복남 24,420 윤숙현 14,200 윤정희박승오 22,100
 은평법회저금통 282,000 이경오 19,400 이도경 22,390 이명소 16,950 이무상
 7,310 이숙영 24,010 이영경 36,000 이은영 81,750 이정자 22,570 이진희
 12,700 이창은 67,880 이태란 19,950 이호중 40,500 이희중 40,350 임춘영
 31,020 장도연 13,230 장준분 51,650 장준호, 장준제 33,410 전은선 31,148 정영
 자 9,800 정왕가정어린이집일동 272,500 정은희 25,710 정현석 18,390 조옥순
 9,730 조인자 9,130 좋은일 18,060 주현아 26,770 **중산중학교 4,640,900** 최서
 원 28,820 최은자 20,860 최형용 40,440 한승운 23,780 한중욱 15,260 한혜자
 50,650 현정, 재형 59,040 황춘화 16,330 GS마트(정도회암) 14,060 SC제일은행
 거제지점(정소영) 23,720 SC제일은행거제지점(정소영) 31,600 SC제일은행거제
 점(정소영) 23,130

➔ 울산

구순남 20,040 권아름엄마 12,450 권태운미용실 15,890 김대현, 김지원 45,730
 김민희 53,650 김법천국(수암점) 3,100 김병복, 김도훈 28,040 김윤경 28,740 김
 윤권 20,110 김학신 20,400 김현성 57,750 무명 31,340 무명 45,430 무명 220
 무명 65,690 무명 8,650 무명 21,970 박복주, 윤현서 22,130 배중균 26,400 심평
 초고김찬희외16명 164,290 안성수 31,820 여승은 52,810 여승진 41,670 여인옥
 34,290 이병호 130,000 이문성 32,320 임수정 12,820 정은숙 6,330 정정아
 6,620 정정영 25,300 조동원 20,900 조형심리미술학원 18,300 파스타부노을
 산대점 34,360 한빛치과 27,300 한살림 34,520 한살림 20,950 현대하이스코
 122,850 호두's트리수업 102,370 황제국밥 15,040 S Bar 43,500

➔ 제천

샌드타임 43,750 손정화 22,800 유다인 23,520 이문성 28,080 이병욱 66,300

문의전화 02-587-8995

창육에 8,760 정영희 34,340

➔ 청주

김명중 61,710 윤태욱 36,900 이영진 23,240 이주희 37,190 지명구 25,510

➔ 해운대

가마데 11,470 강소담 29,350 공혜경 39,650 김순연 19,400 김익현 17,950 김정
 미37,690 김정현 18,630 무명 8,120 무명 30,470 무명 16,420 무명 18,400 무명
 32,250 무명 4,580 무명 18,930 무명 17,360 무명 13,060 무명 23,760 무명
 20,260 무명 3,510 무명 19,800 무명 27,330 무명 20,460 문원보 39,270 박유
 미 20,350 박은수, 은서9,510 성연숙 46,690 손인아 23,610 신미자 25,370 신승
 희 22,200 야쿠르트분점 100,900 이경숙 37,530 이관선 12,870 이서현 31,750
 이숙지 23,230 이은호 13,060 이종원, 이명은 43,870 장수연 33,040 장진영
 30,700 정혜민 16,600 조정화 7,700 최백룡 32,560 최현숙 34,550 통도사큰돼지
 18,350 통도사큰돼지 40,150 파리바게뜨 14,180

| 거리 모금 현황 |

건국대거리 170,000	경주 2,377,040	광명 188,830
광주 1,249,670	길벗 4,873,370	남양주 140,420
대구 4,928,670	대구연등축제 780,300	
대구이마트마일리지 36,110	대전 2,680,700	
대학로 67,000	도봉노원지구 600,000	
동래 3,210,830	동래민주어린이날큰잔치 305,747	
마산 5,394,857	마산거리킵업등판매 180,610	
마산어린이 1,449,030	마산코오롱사우나 272,000	
목포 147,280	분당캠페인 482,270	
분당캠페인 689,200	서울 3,205,360	
수유역 148,500	안산 322,780	안양범계역 519,520
양천 564,000	연극열전 386,100	왜관 20,000
용인기흥 573,980	용인수지 1,029,660	
용인차인 461,030	울산 3,164,139	은평 1,325,970
의정부 105,800	일산 1,006,560	전주 106,000
정읍 184,160	제주 718,200	제천 472,600
청년정토화 873,270	청소년법회판매금 542,650	
청주 1,779,260	평택 193,250	포항 560,000
함안 342,010	함양 407,440	해운대 4,192,919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자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었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플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간급구호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